

가을철 환절기에 다발하는 주요질병 및 대처방안



엄 현 중 원장
피그월드동물병원
한국양돈수의사회 총무

가을철이지만 더운 날씨의 영향을 지속될 것으로 본다. 점점 여름은 장마가 아닌 아열대성 기후인 “우기”라는 단어는 사용하여야 하지 않느냐는 논란도 있는 긴 여름이 가을을 성큼성큼 먹고 있다. 가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가을은 아닌 듯 싶다. 이런 계절적인 환경에서 돼지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환경에 변화에 대한 대책은 현재 돼지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누군가는 해주어야 한다. ‘관리’의 형태로 해 줄 것이냐? ‘시설’의 형태를 보완하여 해 줄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여 해주어야 한다.

가을철에는 당연히 일교차에 의한 문제가 시발점이다. 더운 것과 추운 것을 반복하여 돈군에 주는 스트레스는 다양한 형태로 악영향을 주고 있다. 날씨가 싸늘해지면 가장 영향을 받는 장기는 피부와 호흡기이다.

가을철 주요 발생 질병 중 아래의 항목들을 중점으로 이야기 해보자.

1. PRRS(돼지호흡기생식기증후군)
2. 마이코플라스마성 폐렴 (유행성폐렴)
3. 흉막 폐렴
4. PCV-AD (Porcine Circo Virus Associated Disease)

그리고, 여름철 체력 및 면역력 저하로 인한 설사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서 사료첨가제 중에서 항생제도 좋지만 보조제로서 생균제를 투여하여 자체적인 소화효율과 섭취량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사료통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1. 1주일 이내 급여할 사료만 주문한다.
2. 1일 1시간 이상 사료통의 사료를 절식한다.
→ 깨끗한 사료통을 유지한다. : 관리자가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만큼 유심히 사료통을 보는 것은 관리를 그 만큼 한다는 것이다.

먼저,

1. PRRS(돼지호흡기생식기증후군)



돈군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 원칙 1 : 후보돈사 필수
- 원칙 2 : 음성후보돈을 구입 (양성인 농장 후보돈사에서 백신접종)
- 원칙 3 : 음성정액을 구입하여야 한다.
- 원칙 4 : 두번째 항과 세번째 항이 어려우면 100% 폐쇄돈군으로 간다.
- 원칙 5 : 최소 500m 이내에 농장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은 농장에서 PRRS에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국내 실정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논하기는 어렵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도 산속 폐쇄돈군의 농장 중에서 100% 원치돈사 구조를 가지고 성적이 20두 이상 출하는 농장이 간

<표 1> 가을철 20kg 이전과 이후의 증상별로 발생 질병 예상 항목

구 분	이유후 (체중 5~20kg)	육성비육돈 (체중 20~110kg)
기침	홍막 폐렴 보데텔라 감염증 먼지 유행성폐렴 글래서씨병 PRRS 돼지 인플루엔자	홍막폐렴 유행성 폐렴 파스튜렐라 감염증 PRRS 돼지 인플루엔자
출혈 : 코에서 혈액이 보이는 경우	홍막폐렴 비염	홍막 폐렴 비염
창백한 돼지	빈혈 홍막 폐렴 위궤양* 출혈* 철분결핍 Circovirus	빈혈 홍막 폐렴 위궤양* 내부기생충 돼지장질병
폐렴	홍막폐렴 유행성 폐렴 글래서씨병 폐충 파스튜렐라증 PRRS 살모넬라 콜레라쉬스 돼지 인플루엔자 Circovirus	홍막 폐렴 유행성 폐렴 파스튜렐라증 PRRS 살모넬라 콜레라쉬스 돼지 인플루엔자
설사 혹은 장염	캠필로박터 대장염 대장균성 장염* 열악한 환경* 영양부족* 돼지 장질병 PRRS 살모넬라증 스피로헤타성 설사 돈적리(SD) 돈열 TGE 응모위축*	대장염 캠필로박터 대장염 돼지 장질병 살모넬라증 돈콜레라 돈적리(SD) TGE

혹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2.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유행성폐렴)

이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은 기후조건에 따라 바람에 의해 2.52~3km의 거리까지 전파된다. 균 은 돼지의 체내에서 특히 건조할 때는 바로 사멸되 지만 습하고 차가운 상태에서는 2~3일간 생존할 수가 있다. 임상증상이 나타나기 까지 잠복기간이 길어서 2~8주에 이른다. 돈사와 사양관리가 적절 하고 합병증이 없으면 비교적 대수롭지 않은 질병 으로 돼지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볍다. 그러나 다른 질병들, 특히 흉막폐렴, Hps, 파스튜렐라, PRRS 나 돼지 인플루엔자 등에 감염되면 폐렴양상이 더 욱 복잡해지면서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백신을 하는 것이 가장 좋 다. 백신은 발생일령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접종 일령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이코플라즈마 백신을 접종하면 파스튜렐라성 폐렴과 흉막폐렴 에 대한 감염도를 낮출 수 있다.

3. 흉막 폐렴

흉막균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균주의 종류가 12개 이상의 종을 가지고 있다. 일부는 비병원성 세균이지만 나머지는 심각한 병원성을 가지고 있 다. 균주 1, 5, 9, 11과 12는 병원성이 강하고 균주 3, 6은 매우 병원성이 약하다. 잠복기는 매우 짧 다. 12시간에서 3일 정도이며 공기전파는 5~10m 정도이며 주로, 비말로 전파된다. 노출균수가 많 을수록 질병은 심해진다는 것과 폐에 침입하여 독 소를 생산하여 조직을 손상시켜 괴사를 유발한다 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을철에 환경관리에 있어서 습도가 중요한 것

은 저온 저습시에 비말입자가 작아져서 공기 중에 떠도는 위험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돈사에 일정 이상의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 이 중요하다.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물을 뿌려주면 된다. 물을 뿌려주고 습도를 맞춰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무창돈사에는 과환 기로 인한 저습을 유발하여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도 있다. 물론, 백신을 하는 것도 방안이다. 이것 은 접종일령이 아주 중요하다.



4. PCV-AD(Porcine Circo Virus Associated Disease)

PMWS는 3가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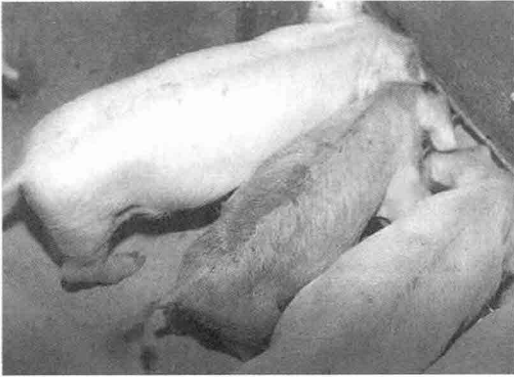
하나, 소모성 질환 형태를 띠는 것으로 성장이 부진하고 총아리가 지는 현상.

둘, 조직학적으로 림프조직의 소실과 육아종성 염증 및 붕입체의 발현.

셋, PCV2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

이 세가지가 이다. 증명되어야 명확한 PCV의 감염증으로 본다. 이것이 증명되지 않고서는이 질 환에 감염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PMWS 증상은 주로 6~8주령 돼지에 호발한 다. 임상적으로는 체중 소실, 쇠약, 빈 호흡, 호흡



곤란, 황달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혼하진 않지만 설사, 기침, 중추신경 이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이환율은 낮은 편이나 폐사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특정 돈군에서는 이환율과 폐사율이 50%에 육박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PRRS가 음성인 농장에서 폐사율은 약 10~15% 수준으로 대체로 낮은 편이나 PRRS와 PMWS가 함께 상존하는 경우 폐사율이 50%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MWS의 4 가지 원칙

첫째, 돼지와 돼지의 접촉의 최소화하라.

- 바이러스는 돼지와 돼지의 접촉에 의해서 농장 내에 전파될 수 있다.
- 직접접촉 : 돼지와 돼지
- 간접접촉 : 주사바늘, 외과적 기구, 분뇨, 사람

둘째,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라.

-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는 질병을 유발

하는 인자가 될 수 있다.

셋째, 좋은 위생 상태를 유지하라.

- 깨끗하게 청소된 건물과 시설은 오염된 축사와의 확연히 차이가 난다.

넷째, 좋은 사료를 먹여라.

- 단지 성장에 좋은 사료가 아니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료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짧게 정리를 해본다. 돈가를 보고 앞으로 가기 보다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보고 가야 할 것 같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라며 물론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한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란다.

〈참고자료〉

돼지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치료 (박영혜)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가족처럼 기른돼지 우리돼지 행복돼지